

중국인 유학생의 생활스트레스 및 문화적응스트레스가 학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미용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임상란, 이지안*
서경대학교 일반대학원 미용예술학과

The effect of Life Stress, Cultural Adaptation Stress and Academic Satisfaction in Chinese Students Studying in the Republic of Korea. - Target on Beauty Major College Students.

Sang-Ran Lim, Ji-An Lee*

Dept. of Beauty Arts, The Graduate School SeoKyo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서울에 재학 중인 20대 중국인 유학생 중 미용전공자 283명을 대상으로 중국인 유학생의 생활스트레스 및 문화적응스트레스가 학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자료 수집은 2017년 2월부터 3월까지 진행하였다. 자료처리 및 분석은 SPSS v.22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연구 대상자인 중국인 유학생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측정도구의 타당성 검증과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해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각 변수 간의 상관관계분석과 회귀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인 유학생의 생활스트레스 하위요인인 친구관계스트레스, 외모스트레스, 경제적스트레스, 가족관계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가 낮아질수록 학업만족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문화적응스트레스의 하위요인 중 인간관계스트레스, 생활문화스트레스를 적게 받을수록 학업만족도는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통해 중국인 유학생들이 한국 유학생생활에서 느끼는 생활스트레스와 문화적응스트레스를 파악하여 문화·생활·교육 측면에서의 적절한 지원체계를 통한 유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함으로써 중국인 유학생들의 학업만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효율적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life stress, cultural adaptation stress, and academic satisfaction amongst a total of 283 20's Chinese students majoring in cosmetology at colleges in Seoul. For this, data was collected from February to March 2017. The frequency analysis was conducted to verify the general characteristic of Chinese student studying in Korea who are study objects while utilizing SPSS Statistics V22.0 for data processing and analysis while the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were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validity of measurement tool and evaluate the reliability. Moreover, the regression analysis between variables and regression analysis were utilized. The results found the following: First, in terms of life stress, as peer relationship, appearance stress, economic stress, family relationship stress and academic stresses decreased, their academic satisfaction increased. Second, regarding cultural adaptation stress, as interpersonal and living culture stresses were lowered, academic satisfaction increased. Therefore, this study targets to derive implications on an efficient plan to improve the academic satisfaction of Chinese students studying in the Republic of Korea by developing and providing a proper academic program with a decent support system in terms of culture, life, and education after investigating their life and cultural adaptation stresses.

Keywords : Beauty, Chinese, Student Studying Abroad, Cultural Adjustment Stresses, Life Stress, Academic Satisfaction

*Corresponding Author : Ji-An Lee(SeoKyong Univ.)

Tel: +82-10-5447-5316 email: jessicajslee@naver.com

Received August 14, 2017

Revised (1st October 10, 2017, 2nd November 8, 2017)

Accepted December 8, 2017

Published December 31, 2017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미래의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전 세계적으로 고등교육 서비스 산업 확대 및 인재 유치 차원에서 신흥 국가 출신의 유학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2015년 교육부의 유학생 유치 확대 방안에 의하면 국내에서도 현재에 이르러 유학 수지의 적자 및 저 출산에 따른 학령인구의 급감, 생산 가능 인구 감소 추세에 대비한 우수 외국인 유학생 및 외국 인력 유치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움직임으로 초기 2003년 12,314명이었던 유학생 수가 2016년도에는 중국인 유학생 50,336명을 포함해 총 104,263명으로 현저히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2011년부터는 89,537명의 총 유학생 수가 2014년에는 84,891명으로 상승폭이 현저히 줄어들었으므로 우리나라의 유학생 수가 정체되고 있는 과도기적 현상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1].

한국 유학생생활에서의 유학생들은 언어문제, 학비 및 재정문제, 사회적 적응문제, 고국에 대한 향수, 개인적 역할 갈등, 일상생활 수행의 어려움에 이르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는데[2], 실제로 유학생들은 외국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하면서 다른 나라의 문화와 사회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기도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문화와 상황에서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3]. 이와 같이 유학생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신체적 건강 저하와 좌절감, 불안, 우울 등과 같은 심리적인 문제를 경험하게 되는데 [4], 유학생생활에서 경험하는 문제들은 그 자체가 스트레스로 작용해 학업 중도 탈락, 유학생 불법 체류 상승 등으로 이어져 우리나라 유학생 수의 정체 과도기적 현상을 부추이고 있는데, 국내 유입 된 유학생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으로 인하여 발생한 유학생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정부에서도 유학생 이탈률이 높은 대학에게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등 패널티를 주므로써 다각으로 학업 중도 탈락 및 불법 체류등으로 인한 유학생의 감소 요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5].

중국 유학생들이 유학생생활을 통하여 경험하고 있는 여러 유형의 어려움에 대하여 선행 연구들은 주로 언어 및 관습의 차이, 낯선 문화에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 등

‘문화적응스트레스’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6-8]. 구체적으로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이 같은 논의에 비추어 보면 중국인 유학생이 느끼는 학업만족도에 있어서 생활스트레스와 문화적응스트레스와는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실제로 중국인 유학생 대상으로 생활스트레스 및 문화적응스트레스가 학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규명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특히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에서의 유학생생활에 있어 효과적인 지원체계에 관한 연구는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며, 중국인 유학생이 느끼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학업 중도 탈락 및 유학생 불법 체류 등에 의한 유학생 수의 정체 과도기적 현상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생활스트레스와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유학생의 학교생활과 삶의 만족뿐 아니라 전 생애 걸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유학생생활에 생활스트레스와 문화적응스트레스를 중점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에 참여한 중국인 유학생을 비롯하여 현재 국내에 유입되어 있는 중국인 유학생들의 일반적인 특성과 한국 유학생생활에서 경험 할 수 있는 생활스트레스 및 문화적응스트레스가 학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하여 국내에 유입된 중국인 유학생이 문화·생활·교육 측면에서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중국인 유학생들의 학업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서울 소재의 대학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중국인 유학생의 생활스트레스 및 문화적응스트레스가 학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로 그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 알아본다.

둘째, 생활스트레스, 문화적응스트레스, 학업만족도의 신뢰도 및 타당성에 대해 알아본다.

셋째, 생활스트레스, 문화적응스트레스, 학업만족도의 상관관계를 알아본다.

넷째, 중국인 유학생이 한국 유학생생활에서 느끼는 생활스트레스가 학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다섯째, 중국인 유학생이 한국 유학생생활에서 느끼는 문화적응스트레스가 학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2. 이론적 배경

2.1 생활스트레스

생활스트레스는 흔히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사소하지만 부담스러운 일에서 느끼는 자극이나 반응을 말하는데 그 빈도와 발생사건의 중요도를 기준으로 주요한 생활사건과 사소한 생활사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주요한 생활사건에는 심각한 질병이나 사고, 이사나 전학, 가족이나 친구의 질병과 부상, 가족구조의 변화 등이 포함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사소한 생활사건은 일상사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는데[6,9] 사소한 생활사건을 일상 속에서나 친구와의 다툼과 같이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유래하는 좌절감과 자극으로 정의하였다[8].

국내에 유입된 중국인 유학생들 또한 자신이 오랜 기간 동안 생활해 온 고국을 떠나 홀로 유학생생활을 하면서 새로운 문화와 생활, 환경 등 새로운 곳에서의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서 느끼게 되는 부담스러운 느낌이나 반응들은 큰 스트레스로 나타난다. 생활스트레스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는 유학생들은 타문화 환경에 적응하면서 사회적, 문화적으로 일정한 정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한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면서 학업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10].

또한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문화에서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문화차이, 교육적, 심리적, 경제적, 언어적 스트레스뿐 만아니라 유학생분리, 동아리활동, 신변안전, 선후배관계와 같은 대학생생활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11].

2.2 문화적응스트레스

문화적응이란 개인이나 집단이 새로운 문화와 접촉할 때 경험하는 변화를 뜻한다[12]. 이러한 문화적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견해를 문화적응스트레스라 하며, 정신적, 육체적인 스트레스 외에도 언어문제, 사회적응과 경제문제, 개인으로서의 역할갈등, 일상생활 수행, 강의내용 이해 부족, 연구수행과 발표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학업성취도 저하, 심리적 부적응 등의 부정적 견해로 나타난다[13]. 특히나 국내 전체 유학생의 57.7%를 차지하는 중국인 유학생의 경우 주로 학업을 목적으로 유학을 선택한 경우들이 많은데 한국에서 새롭게 접하게 되는 한국의 문화, 생활, 학업 등의 적응에 따른 스트레스

를 경험하고 있다.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중국 유학생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영향 요인은 우울정도가 심해질수록, 적응유연성 및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14], 이러한 문화적응스트레스는 한국 체류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스트레스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15].

문화적응스트레스를 다루고 있는 다수의 선행 연구에서는 국내에 유입된 유학생들은 한국에서의 생활 속에서 자국과 한국의 문화차이 등으로 인해 대학생활 적응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고 하였다. 한국에서 느끼는 고향에 대한 향수, 불안감, 우울, 차별감으로 외국인 유학생들은 공부를 하겠다는 의지와 본인의 목표마저 이러한 문제들 앞에 막히게 되어 대학 생활을 온전히 마치지 못하거나 중도 포기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16]. 국내에서 수학하고 있는 화교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Qin[17]의 연구에서는 한국문화적응 압박이 심할수록 화교 중·고등학생들이 학교공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문화적응스트레스는 개인의 특성이나 사회의 조건, 관계 안에서 악화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문화적응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 생활, 학업 등 요인들의 관리와 조절을 통해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볼 수 있다[12].

2.3 학업만족도

만족이란 본인 스스로가 주관적인 관점에서 본인이 정해 놓은 목표와 욕구가 충족된 느낌 또는 상태를 말한다. 또한 한 개인이 가진 기대가 실제로 받은 보상 사이의 일치 정도와 주관적으로 경험했던 만족과 불만족, 행복과 불행, 즐거움과 즐겁지 않은 현상이라 한다[18]. 학업만족도는 학습에 있어서 목적인 바를 달성하거나 학습자 개인이 가지고 있던 기대가 충족되었을 때 얻는 마음의 상태라고 규정할 수 있다[19].

국내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중국인 유학생의 학업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전무하다. 그러나 학교생활을 하며 느끼는 학업만족도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검토해 보면 자발적으로 학업을 선택한 학생들이 교시, 수업, 학교생활, 교육과정, 교육시설, 교육성취에 더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20], 전공학과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높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학업성취가 단순히 교

과목의 성취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 성과인 교육목표의 포괄적 달성을 의미하므로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이 없는 상황에서 학업성취수준 향상도 기대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21].

따라서 대학생이 자신의 전공에 만족할수록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졸업 후의 진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전공에 대한 만족은 매우 중요하다[11].

3. 연구 방법

3.1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는 서울 소재의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미용을 전공하는 20대 중국인 유학생 300명을 선정하여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본 설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대학에서 중국인 유학생들의 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교수님의 설명을 듣고 자기보고 방식으로 설문을 실시하게끔 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지는 연구 대상자들의 언어 수준을 고려하여 한국어로 작성한 설문지를 중국어뿐만 아니라 한국어에도 능숙한 현지 연구원 3명이 역 번역 하였고, 번역한 설문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S대학에 중어중문학과에 재직 중이신 교수에게 의뢰하여 감수를 받아 완성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조사는 2017년 2월부터 3월까지 진행하였으며, 총 300부를 수거하였으나 불확실한 설문지 17부를 제외한 283부의 설문지가 본 연구에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되었다.

3.2 연구 도구

3.2.1 생활스트레스

생활스트레스에 대한 설문문항은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22]의 평소에 겪는 스트레스에 관한 생활스트레스 척도 17개의 문항 중 15문항을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2문항은 본 연구자가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가하였다. 19문항의 각 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로부터 매우 그렇다(5)에 이르는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의 생활스트레스에 대한 신뢰성 검증 결과, 신뢰도는 Cronbach's α 계수의 0.789~0.914로 높게 나타나, 신뢰성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나타났다.

3.2.2 문화적응스트레스

문화적응스트레스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문항은 선행연구자 Chung[23]의 3문항, Qin[17]의 4문항, Lee[13]의 2문항, 마지막으로 1문항은 본 연구자가 연구 대상자의 특성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10문항의 각 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로부터 매우 그렇다(5)에 이르는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다. 문화적응스트레스의 신뢰성 검증 결과, 신뢰도는 Cronbach's α 계수의 0.568~0.843으로 높게 나타나, 신뢰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2.3 학업만족도

학업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자 Lim, Lee[19]의 4문항과 Lee[24], Cho[25], Jeon[26]의 설문 문항 중 각각 1문항씩 선택하여 본 연구에서 특성에 맞게 수정하여 총 7문항을 사용하였다. 또한 각 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로부터 '매우 그렇다(5)'에 이르는 5점 리커트식 척도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학업만족도 신뢰성 검증 결과, 신뢰도는 Cronbach's α 계수의 0.884로 나타났다.

3.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v.22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다음과 같은 분석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인 중국인 유학생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측정도구의 타당성 검증과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해 측정도구에 대한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 추출분석 방법으로는 주성분 분석(principle components)을 이용하였으며, 고유값(eigen value)은 1.0이상의 값으로 선택하여 직교회전(varimax) 방식으로 요인을 추출하였다. 요인 적재치(factor loading)의 값은 .50이상만을 유의한 것으로 설정하였으며, 문항의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셋째, 각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넷째, 생활스트레스가 학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다섯째, 문화적응스트레스가 학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4. 연구 결과

4.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인 중국인 유학생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Table 1. 과 같다.

성별은 남자 15.8%, 여자 84.3%로 여자가 높게 나타났고, 주거형태는 ‘자가’ 1.4%, ‘전세’ 2.8%, ‘월세’ 78.8%, ‘기숙사’ 17.0%로 ‘월세’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한 달 생활비(용돈 포함)는 ‘50만원 미만’ 11.3%, ‘50만원에서 100만원 미만’ 48.1%, ‘100만원에서 150만원 미만’ 32.5%, ‘150만원 이상’ 8.1%로 ‘50만원에서 100만원 미만’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국어 수준의 경우 ‘상(Topik5-6급)’ 19.1%, ‘중(Topik3-4급)’ 72.8%,

‘하(Topik2급 이하)’ 8.1%로 ‘중(Topik3-4급)’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중국인 친구의 수는 ‘없다’ 0.4%, ‘5명 미만’ 11.0%, ‘5명에서 10명 미만’ 26.5%, ‘10명 이상’ 62.1%로 ‘10명 이상’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한국인 친구의 수는 ‘없다’ 24.4%, ‘5명 미만’ 54.1%, ‘5명에서 10명 미만’ 16.6%, ‘10명 이상’ 4.9%로 ‘5명 미만’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국 거주 기간을 알아본 결과 ‘1년 미만’ 18.0%, ‘1년에서 3년 미만’ 65.0%, ‘3년에서 5년 미만’ 15.6%, ‘5년 이상’ 1.4%로 ‘1년에서 3년 미만’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유학결정 계기로는 ‘자발적 결정’ 78.4%, ‘가족의 권유’ 15.5%, ‘친구나 지인의 권유’ 6.1%로 ‘자발적 결정’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공 선택 이유로는 ‘본인이 전공분야에 있어 한국이 우수하다

Table 1. Subjects' General Characteristics

Category		Total (N=283,%)	
		Frequency (N)	Percent (%)
Gender	Male	63	15.8
	Female	237	84.3
Housing Type	Jaga (Homeownership)	4	1.4
	Jeonse (Key Money Deposit)	8	2.8
	Wolse (Monthly Rent)	223	78.8
	Dorm	48	17.0
Monthly Living Expenses (Including Allowance)	Less than KRW 500,000	32	11.3
	KRW 500,000 - less than KRW 1 million	136	48.1
	KRW 1 million - less than KRW 1.5 million	92	32.5
Korean Language Proficiency	KRW 1.5 million or more	23	8.1
	Advanced (TOPIK levels 5-6)	54	19.1
	Intermediate (TOPIK levels 3-4)	206	72.8
no. of Chinese Friends	Beginner (TOPIK level 2 or below)	23	8.1
	None	1	0.4
	Less than 5	31	11.0
no. of Korean Friends	5 - less than 10	75	26.5
	10 or more	176	62.1
	None	69	24.4
Length of Stay in the Republic of Korea	Less than 5	153	54.1
	5 - less than 10	47	16.6
	10 or more	14	4.9
Reasons for Decision to Study Abroad	Less than 1 year	51	18.0
	1 year - less than 3 years	184	65.0
	3 years - less than 5 years	44	15.6
Reasons for Choosing Major	5 years or longer	4	1.4
	Voluntary decision	222	78.4
	Recommended by family	44	15.5
Reasons for Choosing Major	Recommended by friends or acquaintances	17	6.1
	I think Korea's program relating to my academic major is superior.	104	36.7
	Because of hallyu ('Korean Wave')	24	8.6
Reasons for Choosing Major	I believe that my major is advantageous in getting a job and making a good income.	42	14.8
	My major is a great fit for my aptitude.	113	39.9
Total		283	100.0

고 생각해서' 36.7%, '한류문화의 영향으로' 8.6%, '본인의 전공분야가 취업이 잘되고 돈을 잘 벌수 있다고 생각해서' 14.8%, '본인의 적성에 잘 맞아서' 39.9%로 '본인의 적성에 잘 맞아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4.2 생활스트레스, 문화적응스트레스, 학업만족도의 신뢰도 및 타당성

4.2.1 생활스트레스

생활스트레스 문항에 대한 신뢰도 및 타당성 검증을 위해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Bartlett의 단위행렬검정 결과 $X^2=3330.601(df=136, Sig=.000)$, KMO값 0.902 로 나타났으며, 공통성은 0.711 이상으로 나타났다. 요인분석 결과 다섯 가지 요인이 추출되었다. 각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들을 토대로 하여 다음 Table 2. 와 같이 요인을 명명하였다.

첫 번째 요인은 '친구관계스트레스' 요인으로 요인적재값은 0.739~0.834 로 나타났으며, 고유값은 3.176, 분산설명비율은 18.7%로 나타났다. 두 번째 요인은 '외모스트레스' 요인으로 요인적재값은 0.741~0.787 로 나타났으며, 고유값은 3.034, 분산설명비율은 17.8%로 나타났다. 세 번째 요인은 '경제적스트레스' 요인으로 요인적재값은 0.716~0.848 로 나타났으며, 고유값은 2.963, 분산설명비율은 17.4%로 나타났다. 네 번째 요인은 '가족관계스트레스' 요인으로 요인적재값은 0.743~0.898 로 나타났으며, 고유값은 2.583, 분산설명비율은 15.2%로 나타났다. 다섯 번째 요인은 '학업스트레스' 요인으로 요인적재값은 0.828~0.842 로 나타났으며, 고유값은 1.669 분산설명비율은 9.8%로 나타났다.

요인분석 결과 도출된 다섯 개의 요인이 전체 분산의 79.0%이상 설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스트레스에 대한 신뢰성 검증 결과, 신뢰도 계수

Table 2. Life Stress

Item	Factor 1	Factor 2	Factor 3	Factor 4	Factor 5	Commonality
	Peer Relationship Stress	Appearance Stress	Economic Stress	Family Relationship Stress	Academic Stress	
I am stressed because I have no friends.	.834	.141	.149	.138	.191	.793
I am stressed because my friends ignore or make fun of me.	.799	.248	.214	.243	.144	.824
I am stressed because I hold an inferiority complex against my friends.	.784	.326	.146	.234	.127	.813
I am stressed because my friends do not respect me.	.739	.277	.152	.352	.118	.784
I am stressed because I am under/overweight.	.084	.787	.258	.043	.126	.711
I am stressed because I am too short or tall.	.205	.786	.142	.222	.137	.747
I am stressed because I am not able to wear stylish clothes.	.365	.758	.189	.112	.101	.766
I am stressed because of my face.	.348	.741	.204	.150	.148	.757
I am stressed because of high living expenses (e.g., rent, tax, meal expenses, etc.).	.168	.227	.848	.043	.058	.803
I am stressed because of high tuition.	.131	-.001	.829	.089	.197	.751
I am stressed because of low allowance.	.115	.306	.805	.169	.163	.809
I am stressed because I am not able to get what I want.	.194	.374	.716	.178	.094	.731
I am stressed because of my parents' excessive interference.	.155	.109	.109	.898	.128	.871
I am stressed because of conflicts with my parents.	.234	.137	.118	.876	.098	.864
I am stressed because I can't communicate well with my parents.	.359	.171	.151	.743	.132	.750
I am stressed because of homework (assignments) or exams.	.185	.161	.202	.137	.842	.828
I am stressed because of poor school grades.	.202	.194	.178	.162	.828	.822
Eigenvalue	3.176	3.034	2.963	2.583	1.669	
Explained Variance (%)	18.682	17.846	17.429	15.192	9.819	
Cumulative Variance (%)	18.682	36.529	53.958	69.150	78.970	
Reliability Coefficient (Cronbach's Alpha)	.914	.874	.884	.890	.789	

인 Cronbach's α 는 0.789~0.914로 높게 나타나, 신뢰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별로 살펴보면, 친구관계스트레스 0.914, 외모스트레스 0.874, 경제적스트레스 0.884, 가족관계스트레스 0.890, 학업스트레스 0.789로 나타났다.

4.2.2 문화적응스트레스

문화적응스트레스 문항에 대한 신뢰도 및 타당성 검증 위해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Bartlett의 단위행렬 점검 결과 $X^2=1056.813(df=45, Sig=.000)$, KMO값 0.834로 나타났으며, 공통성은 0.552 이상으로 나타났다. 요인분석 결과 세 가지 요인이 추출되었다. 각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들을 토대로 하여 다음 Table 3.

과 같이 요인을 명명하였다.

첫 번째 요인은 ‘인간관계스트레스’ 요인으로 요인적재값은 0.618~0.833으로 나타났으며, 고유값은 2.932, 분산설명비율은 29.3%로 나타났다. 두 번째 요인은 ‘언어스트레스’ 요인으로 요인적재값은 0.729~0.857로 나타났으며, 고유값은 2.156, 분산설명비율은 21.6%로 나타났다. 세 번째 요인은 ‘사회문화스트레스’ 요인으로 요인적재값은 0.734~0.847로 나타났으며, 고유값은 1.588, 분산설명비율은 15.9%로 나타났다.

요인분석 결과 도출된 세 개의 요인이 전체 분산의 66.8%이상 설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적응스트레스에 대한 신뢰성 검증 결과,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 는 0.568~0.843으로 나타났다. 요

Table 3. Cultural Adaptation Stress

Item	Factor 1	Factor 2	Factor 3	Commonality
	Interpersonal Stress	Language Stress	Sociocultural Stress	
Korean people tend to have prejudice against foreigners.	.833	.048	.218	.743
It would be hard because of Koreans' authoritarian attitude or compulsion.	.794	.224	.111	.693
I would be treated rudely or unfairly because of my poor Korean language skills.	.747	.312	-.069	.660
I feel that I am alienated from Korean people.	.665	.235	.290	.582
I am confused by Korea's different interpersonal culture.	.618	.206	.357	.552
I am having a hard time solving problems due to my poor Korean language skills.	.209	.857	.057	.781
I am concerned with my Chinese accent when I speak Korean.	.138	.791	.038	.647
I feel uncomfortable with those who speak Korean only.	.292	.729	.224	.666
It's hard to get accustomed to Korea's drinking culture.	.079	.112	.847	.737
It's difficult to get familiar with Korea's food culture.	.269	.064	.734	.615
Eigenvalue	2.932	2.156	1.588	
Explained Variance (%)	29.325	21.565	15.878	
Cumulative Variance (%)	29.325	50.889	66.768	
Reliability Coefficient (Cronbach's Alpha)	.843	.767	.568	

Table 4. Academic Satisfaction

Item	Factor 1	Commonality
	Academic Satisfaction	
Regarding my academic major, my desire has been satisfied as much as expected.	.837	.700
I don't regret my choice of major.	.824	.679
I believe that my major would be helpful for my future job and career development.	.821	.673
I got more confident in my studying through my academic major.	.817	.667
I'd like to recommend my major to others.	.747	.558
I'd like to study my major further through additional or intensive courses (e.g., graduate school program, special lecture, etc.).	.682	.465
I am able to sort and organize the class information or learning materials according to my goals..	.653	.426
Eigenvalue	4.170	
Explained Variance (%)	59.567	
Cumulative Variance (%)	59.567	
Reliability Coefficient (Cronbach's Alpha)	.884	

인별 살펴보면, 인간관계스트레스 0.843, 언어스트레스 0.767, 사회문화스트레스 0.568 로 나타나 인간관계스트레스와 언어스트레스는 신뢰도 값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사회문화스트레스 요인은 다소 신뢰도 값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Lee[13]의 선행 연구에서 문화적응에 대한 생활문화(음식문화, 음주문화)요인을 전문가회의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문화적응스트레스의 문항과 유사한 문항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어 생활문화 요인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4.2.3 학업만족도

학업만족도 문항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을 위해 다음 Table 4. 와 같이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Bartlett의 단위행렬 점검 결과 $X^2=977.243$ (df=21, Sig=.000), KMO값 0.887 로 나타났으며, 공통성은 0.426 이상으로 나타났다.

학업만족도에 대한 신뢰성 검증 결과,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 는 0.884로 나타났다.

4.3 생활스트레스와 문화적응스트레스 및 학업만족도의 상관관계 검증

다음 Table 5. 는 각 변수 간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 검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생활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인 친구관계스트레스는 모든 요인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외모스트레스 요인은 생활문화스트레스, 학업만족도를 제외한 모든 요인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스트레스 요인은 언어, 생활문화스트레스 요인을 제외한 모든 요인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관계스트레스 요인은 생활문화스트레스와 학업만족도 요인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스트레스는 인간관계스트레스를 제외한 모든 요인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적응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인 인간관계스트레스 요인은 가족관계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를 제외한 모든

Table 5. Correlations among Life Stress, Cultural Adaptation Stress and Academic Satisfaction

Item	Factor 1	Commonality
	Academic Satisfaction	
Regarding my academic major, my desire has been satisfied as much as expected.	.837	.700
I don't regret my choice of major.	.824	.679
I believe that my major would be helpful for my future job and career development.	.821	.673
I got more confident in my studying through my academic major.	.817	.667
I'd like to recommend my major to others.	.747	.558
I'd like to study my major further through additional or intensive courses (e.g., graduate school program, special lecture, etc.).	.682	.465
I am able to sort and organize the class information or learning materials according to my goals..	.653	.426
Eigenvalue	4.170	
Explained Variance (%)	59.567	
Cumulative Variance (%)	59.567	
Reliability Coefficient (Cronbach's Alpha)	.884	

Table 6. Relationship between Life Stress on Academic Satisfaction

Model	Coefficient (B)	Standard Errors of Coefficients (SE B)	β	t	p
(Constant)	.000	.055		.000	1.000
Peer Relationship Stress	-.246	.055	-.246	-4.462	.000*
Appearance Stress	-.116	.055	-.116	-2.099	.037***
Economic Stress	-.138	.055	-.138	-2.502	.013***
Family Relationship Stress	-.176	.055	-.176	-3.195	.002**
Academic Stress	-.179	.055	-.179	-3.237	.001**
		adj R ² =0.141	F=10.251	p=.000*	

p<.001* p<.01** p<.05***

Table 7. Relationship between Cultural Adaptation Stress and Academic Satisfaction

Model		Coefficient (B)	Standard Errors of Coefficients (SE B)	β	t	p
Academic Satisfaction	(Constant)	.000	.057		.000	1.000
	Interpersonal Stress	-.245	.057	-.245	-4.317	.000*
	Language Stress	-.028	.057	-.028	-.488	.626
	Living Culture Stress	-.206	.057	-.206	-3.625	.000*
		adj R ² =0.093	F=10.671	p=.000*		

p<.001*

요인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언어스트레스 요인은 친구관계, 외모, 학업스트레스 요인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활문화스트레스 요인은 외모, 경제적 스트레스를 제외한 모든 요인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만족도 요인은 외모, 언어스트레스 요인을 제외한 모든 요인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4 생활스트레스가 학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생활스트레스가 학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Table 6. 과 같다.

생활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인 친구관계, 외모, 경제적, 가족관계, 학업스트레스가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친구관계, 외모, 경제적, 가족관계, 학업스트레스가 학업만족도 요인을 예측하는데 14.1%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친구관계스트레스(p<.001), 가족관계, 학업스트레스(p<.01), 외모, 경제적스트레스(p<.05)가 유의미하게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친구관계, 외모, 경제적, 가족관계, 학업스트레스가 낮아질수록 학업만족도는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변수의 영향력은 친구관계스트레스 $\beta = -.246$, 학업스트레스 $\beta = -.179$, 가족관계스트레스 $\beta = -.176$, 경제적스트레스 $\beta = -.138$, 외모스트레스 $\beta = -.116$ 순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5 문화적응스트레스가 학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문화적응스트레스가 학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Table 7. 과 같다.

문화적응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인 인간관계, 생활문화스트레스가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인간관계, 생활문화스트레스가 학업만족도 요인을 예측하는데 9.3%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인간관계, 생활문화스트레스(p<.001)가 유의미하게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간관계, 생활문화스트레스가 낮아질수록 학업만족도는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변수의 영향력은 인간관계스트레스 $\beta = -.245$, 생활문화스트레스 $\beta = -.206$ 순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스트레스는 학업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유학생들의 문화적응스트레스의 인간관계스트레스와 생활문화스트레스가 학업만족도와 상호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국내에 유입된 미용 전공 중국인 유학생의 생활-문화-교육적인 측면에서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학업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미용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생활스트레스와 문화적응스트레스가 학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인 유학생의 생활스트레스가 학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생활스트레스의 친구관계스트레스, 외모스트레스, 경제적스트레스, 가족관계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가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친구관계스트레스, 외모스트레스, 경제적스트레스, 가족관계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가 낮아질수록 학업만족도는 높아지는 영향 관계를 알 수 있었다.

둘째, 문화적응스트레스가 학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을 살펴보면 문화적응스트레스에 있어 인간관계스트레스와 생활문화스트레스가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결과적으로 인간관계스트레스와 생활문화스트레스가 낮아질수록 학업만족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언어스트레스의 경우는 학업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 대상자가 주로 이론 중심이 아닌 실기 중심의 수업을 하는 미용전공자로서 타 학문 전공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언어적 스트레스를 덜 받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더불어 최근 정부차원에서 중국인 유학생들의 학업·생활 적응 지원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어능력시험(TOPIK)입학 등급을 3급에서 2급으로 나눈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해당 대학이 유학생 입학 후 1년간 한국어연수를 일정시간 의무제공하는 등 한국어 능력향상을 위해 적극 지원하는 등의 맞춤형 어학 기준의 설정이 [27]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따라서 생활스트레스와 문화적응스트레스는 학업 중도 탈락, 유학생 불법체류와 같은 유학생들의 부적응을 초래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학생들의 학업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중국인 유학생들의 학업만족도에 부정적인 요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중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고자 하는 국내 대학에서는 유학생들의 문화·생활 뿐 아니라 교육적인 측면에서 질 높고 체계적인 방안을 구축하여 효과적인 유학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한편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고자 한다.

현재 국내에 유입 된 미용전공 중국인 유학생 가운데 남자 유학생의 수는 매우 적은 실정으로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로 미용을 전공하는 중국인 남자 유학생의 자료 수집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전공에 다양성을 반영하여 중국인 유학생의 성별에 따라 생활스트레스 및 문화적응스트레스가 학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를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중국인 남·여 유학생 모두 성공적인 유학생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 [1] Ministry of Education, "Expansion of attracting foreign students" <http://www.moe.go.kr/main.do?s=moe>. (April

31, 2017)

- [2] Mallinckrodt, B. & Leong, F. T. L., "International Graduate Student, Stress and Social Support,"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33, pp. 71-78, 1992.
- [3] H. S. Jeong, "Influence Factors on Acculturative Stress among Chinese Students Studying in Korea: Focusing on Spiritual Well-Being",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vol. 16, no. 7, p. 4769, 2015. DOI: <https://doi.org/10.5762/KAIS.2015.16.7.4768>
- [4] H. J. Lee, H. J. Nam, "A Study of Korean Students' Acculturat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Foreign Countries. - Korean students studying in the US", *Korea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10, no. 4, pp. 121-142, 2010.
- [5] Ministry of Education, Ministry of Justice, "14year International Education Quality Assurance System" <http://me2.do/GmAhC9bp>. (October 4, 2017)
- [6] I. S. NA, " A Study on the Effects of Acculturative Stress and Life Stress among Foreign Students", *Korean Association of Nonprofit Organization Research*, vol. 5, no. 2, pp. 159-166, 2006.
- [7] J. A. Kim, I. G. Kim, "Acculturative stress, social support and self efficacy for Chinese students in Korea",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7, no. 1, pp. 1-2, 2011.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1.17.1.052>
- [8] M. S. Yoon, N. H. Kim, "Effects of Acculturative and Life Stress, Parental and Peer Attachment on the Life Satisfaction among Chinese University Students in Korea", *Korea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20, no. 8, pp. 25-33, 2013.
- [9] Kaner, A. Kan D., Coyne, J. C, Schaefer, C., & Lazarus, R. S., "Comparison of two modes of stress measurement: Daily hassles and uplifts versus major life event."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vol. 1, no. 4, pp. 1-39, 1981. DOI: <https://doi.org/10.1007/BF00844845>
- [10] Michike Yane, "A Study of Stressful Situations for Japanness Studens in South Korea",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pp. 10-14, 2002.
- [11] C. H. Lim, "Acculturative Stresses and Adjustment elements of Chinese students' studying in Koreavol",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vol. 18, no. 1, pp. 5-15, 2009. DOI: <https://doi.org/10.5934/KJHE.2009.18.1.093>
- [12] Berry, J. W. Kim, U, Minde, T. & Mok, D. "Comparative Studies of Acculturatives Stres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vol. 21, no. 3, 1998.
- [13] S. M. Lee, "Effects Attitude of Cross-Culture and Personal Traits on Acculturation for Foreigner Students living in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Contents*, vol. 14, no. 4, p. 373, 2014. DOI: <https://doi.org/10.5392/JKCA.2014.14.04.368>
- [14] H. K. Kim, Y. J. Son, M. R. Lee, "Predictors of Acculturative Stress among Chinese Students in Korea."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vol. 22, no. 3, p. 151, 2010.
- [15] J. Y. Se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Way of stress coping and Cultural Accommodation Stress the Chinese

student"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Woosuk University Major in Counseling Psychology, p. 11, 2009.

- [16] M. K. Undral, "Impact Acculturation Stress of the Mongolian Students on College lif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of Daegu University, pp. 23-24, 2016.
- [17] Z. Qin, "Relationships among Acculturative Stress, Chinese and Korean Language Competency, and School Adjustment among Adolescents at Chinese Schools in Korea"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pp. 37-54, 2016.
- [18] Y. Wang, "The Effects of Self-efficiency and Self-esteem on Major Selection and Satisfaction: Focusing on Chinese Students in Korea" Department of Sociology Graduate School Yeungnam University, p. 11, 2017.
- [19] H. Y. Lim, S. M. Lee, "A Study Exploring the Relationship of Educational Participatory Motivation and Educational Satisfaction among Adult Social Work Students of a Cyber University" International Journal of Contents, vol. 14, no. 10, p. 409, 2014.
DOI: <https://doi.org/10.5392/JKCA.2014.14.10.403>
- [20] Y. D. Sohn, "study on the educational satisfaction in the alternative school" Dept. of Social Study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Yonsei University, pp. 43-45, 2003.
- [21] S. E. Heo, "Convergence Study on Major Satisfac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Community Service Experience in University students", Dept. of Dental Hygiene, College of Health and Welfare Silla University, vol. 22, no. 1, p. 86, 2011.
- [22]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Korea Youth Panel Survey(KYPS) VI ? Middle 6", pp. 30-38, 2008.
- [23] N. J. Chung, "A Study on the Academic A daptation Factors of International Students Invited by Korean Government", Department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Dnkook University, p. 127, 2010.
- [24] J. Y. Lee, "A study of the motive of mobile leaning participation of adult learners and the Research for satisfaction level of learning", Dept. of Lifelong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Ajou University, p. 79, 2012.
- [25] A. R. Cho, "Investigation on the Relationships among Self-directed learning Capacity, Learning flow, Learning Attitude, and Academic Achievement in Cyber University", Departmen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ungshin Women's University, p. 59, 2012.
- [26] G. J. Jeon, "Correlation between Female University Students' Motivation for Higher Education and, Quality of Life and Their Satisfaction in Lifelong Study", Department of Lifelong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Gwangju Women's University. Gwangju, p. 77, 2016.
- [27] Ministry of Education, "Announcement of Strategic International Student Attendance and Support Plan", <http://www.moe.go.kr/main.do?s=moe>.(April 31, 2017)

임 상 란(Sang-Ran Lim)

[정회원]



- 2014년 2월 : 건양대학교 일반대학원(의료뷰티학석사)
- 2016년 3월 ~ 현재 : 서경대학교 일반대학원(미용예술학박사과정 중)
- 2016년 3월 ~ 현재 : 충청대학교 의료미용과 외래교수
- 2015년 3월 ~ 현재 : 서경대학교 뷰티테라피 & 메이크업학과 외래교수

<관심분야>

K-Beauty, 의료, 교육, 사회과학

이 지 안(Ji-An Lee)

[정회원]



- 2007년 2월: 서경대학교 대학원 (미용예술학석사)
- 2012년 2월 : 원광대학교 대학원 (미용학박사)
- 2011년 3월 ~ 2013년 8월 : 삼육보건대학 토털미용과 겸임교수
- 2013년 9월 ~ 2017년 8월 : 서경대학교 미용 예술학과 조빙교수
- 2017년 9월 ~ 현재 : 서경대학교 미용예술대학 뷰티테라피 & 메이크업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뷰티테라피, 교육, K-Beauty산업